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 마더센터

2015. 9. 11 | 최정은_새사연 연구원 | jechoi@saesayon.org

독일 마더센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마더센터가 여성, 아이, 어르신, 지역주민, 시민사회 등의 활동무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마더센터는 자조와 역량강화라는 두 축의 원칙을 지켜오며 지난 35년간 단계별로 발전해왔다. 그 과정 안에서 무수히 많은 갈등도 겪으면서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렸다. 마더센터는 아이와 가정에 갇힌 엄마들을 생활 전문가로 거듭나게 한 밑거름이었다.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글은 <2015 서울마을박람회> 키퍼런스 자료집에도 실렸습니다.

독일 마더센터의 분명한 색깔들

독일 마더센터의 시작과 발전과정이 결집된 영문보고서¹⁾를 중점적으로 읽어나갔다. 이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하면서 소금꽃마을 준비모임 회원들과 시사점도 나눴다. 이 보고서에는 마더센터의 일상, 기획의 시장, 경제성, 아이들, 갈등, 사람들, 교육과 훈련, 마더센터 시작 아이디어, 마더센터 현주소 진단 등이 차례로 담겨져 있다.

이 책이 발간된 시점이 2002년이다. 현재 독일 마더센터의 모습을 알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이기도 한 독일 오스나부르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있는 연구자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마더센터를 탐방해 마더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고, 현재의 생생한 모습도 더 담을 예정이다.

우선 준비모임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더센터의 출발과 성숙의 조건들, 엄마들이 시작한 마더센터가 어떻게 지속가능할 수 있었는지 경영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공동체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1) MINE, “mothers in the center, mother centers”, 2002.



있는 갈등지점과 그 대응, 마더센터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와 영향요인 등을 보았다(그림1 참고).

그림 1. 독일 마더센터 연구 내용

시작	발전	기회의 시장	갈등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발굴 • 재정지원과 운영구조 • 제6법칙: 운영진 꾸리기, 모임 장소, 정보 수집과 시와 연대, 법적 관리체계, 컨셉, 파트너와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 테이블→ 지역 공동체 서비스→ 정치참여 • 엄마와 아이 육아→ 맞춤형 아이돌봄 • 자원활동→ 전문가와 협력 • 협력자로서 부모들 • 생활전문가 정의 •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할인매장 • 기업인 배출 • 긴급서비스 • 동료 배움 • 정보 나눔 • 점심테이블 • 바느질 모임 • 수선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을 둘러싼 갈등, 자원활동가와 임금 • 엄마들간 차이→ 위협 • 갈등 극복 십계명 • 갈등 사례 • A→Z까지 다양한 사람들

출처: MINE, “mothers in the center, mother centers”, 2002.

1) ‘아이디어’ 에서 ‘운동’ 으로

독일의 마더센터는 부모교육에서 장기간 연구의 결과로 피어난 아이디어였다. 독일 청소년 기관의 헌신적인 직원들에 의해 개념화되고, 발전되었다. 마더센터 ‘운동’ 으로 확장되면서, 독일 전역과 세계로부터 자신들의 마더센터를 만들려는 열성적인 여성들에게 수백 개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마더센터의 세 개 센터에서 50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해 지난 20여 년간 마더센터의 발전을 담은 책을 그 결과물로 내놓게 되었다.

2) 운영 철학

수많은 전업맘들은 아이와 함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외로움이 크다. 일하는 여성들이라도 다르지 않다. 직장맘들은 외부활동과 별이를 보장받지만, 대신 다른 엄마들과 만나 아이로 인한 경험, 지식, 인식을 나누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직장맘이나 전업맘 모두가 겪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더센터가 시작되었다.

책 전반을 통해 마더센터의 운영철학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는 자조 (self-help)의 원칙이다. 이는 자기 발전을 위해 스스로 애쓰는 말로, 마더센



터의 모든 활동이 개인의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역량강화 (empowerment)로, 마더센터의 긴 이름 안에 이 용어가 포함돼 있기도 하다. 이는 자조와 크게 맞닿아 있는 원칙이자 목적으로도 보인다. 역량강화는 엄마와 여성,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가진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서로 도와가며 향상시켜, 결국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간다는 의미까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그림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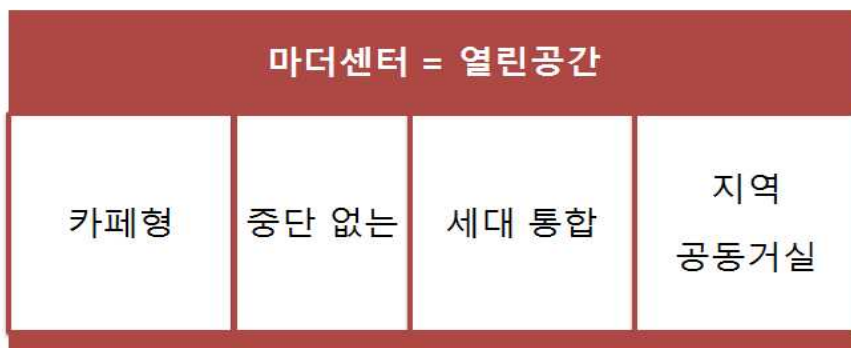
그림 2. 마더센터 운영 철학



3) '열린공간'

열린공간은 여럿 있을 수 있지만, 마더센터만의 특징으로 손꼽을 만한 특별한 수식어들이 있다. 마더센터는 카페형이면서, 중단 없이 운영되며, 세대 통합이 가능하고, 지역의 공동거실로도 활용도 높은 열린공간이라 부를 만하다(그림3 참고).

그림 3. 마더센터는 열린공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마더센터는 여성들 모두가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카페형 공간이다.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은 비단 ‘엄마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싱글맘에서 육아맘, 나이 지긋한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다양하다.

중단 없이 운영되는 특징도 갖는다.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이와 같이 와서 밥을 먹고 놀기도 하고, 일이 있어 아이만 맡기기도 하고, 퇴근 후에 필요한 홈서비스를 받기 위해 들르기도 하고, 노인돌봄이나 의료서비스 연계도 이뤄지는 등 세대나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마더센터는 일 역량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고, 세대 간에도 분절되어 있으며,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나뉘지고, 지역공동체 참여나 관계성의 가치를 배울 ‘생활’과도 떨어져있는 사회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마더센터의 어르신들은 청년, 아이들과 즐겁게 지낸다. 항상 어르신들을 어린아이처럼 돌봐야한다거나 아이와 청년이 어르신들로부터 배워야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상호 편견과 두려움이 완화될 수 있다. 이는 마더센터에서 여러 단계로 실현되고, 일상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섞이면서 가능해졌다. 어르신들이 점심을 차리거나, 방을 꾸미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파티나 행사에 참여한다. 이를 위한 중요한 단계는 어르신 개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계기다.

마더센터는 기관이기 보다는 ‘공동의 거실’과도 같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기관 돌봄과 다르기도 하다. 센터 안에서 어르신들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과 만남이 이어진다. 아이들이 주변을 뛰어다니고, 웃고, 떠들고, 엄마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기도 한다. 궁금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이 정보를 얻거나 상담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일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마더센터 사람들은 전문적 상담이나 충고를 교류한다.

4) 주요 발전

지난 20여 년간 마더센터는 단계별로 발전을 이뤄갔다. 여러 어려움과 갈등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자조와 역량강화의 원칙을 지켜내며 소중한 성과를 일궈냈다.

처음에는 커피테이블을 두고 교류가 가능했으나, 어느새 지역공동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정치참여의 주체로도 성장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나다가,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다가, 요구되는 맞춤형 아이돌봄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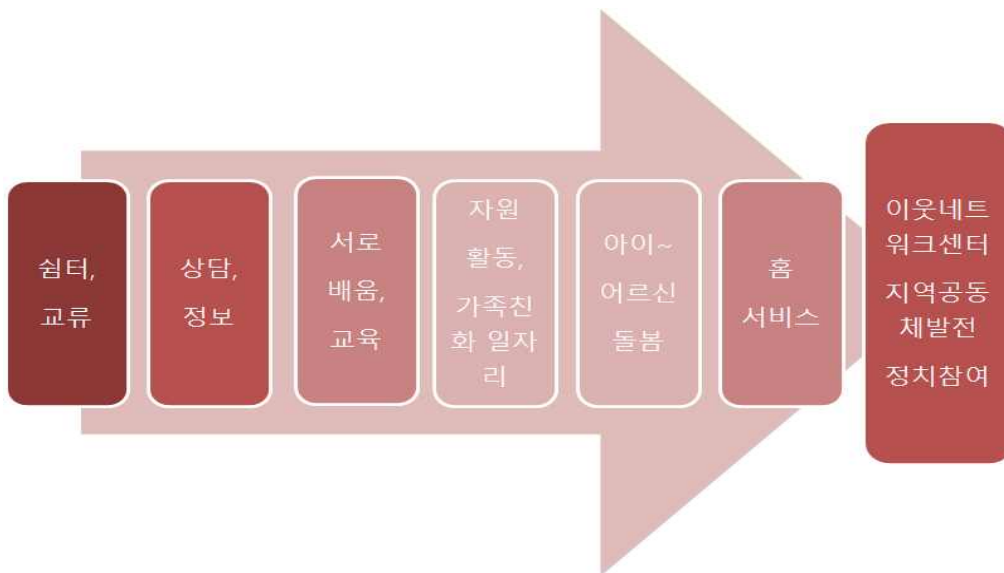
하게 되었다. 재정적인 한계로 자원활동이 많았으나, 자체 사업과 보조금을 받으면서 전문가와 엄마가 협력 관계로 발전했고, 엄마들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쌓아가며 생활전문가로도 거듭날 수 있었다(그림4 참고).

그림 4. 마더센터의 주요 발전



활동과 발전 방향

그림 5. 마더센터 활동과 발전 방향



1) 컴퓨터와 교류의 장

마더센터 부엌에는 매일 100인분의 요리가 준비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관 식당이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



기 보다는 가정집 주방과 같은 모습이다. 처음 오는 사람들도 마더센터의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는 마더센터의 첫 번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여성들과 교류하는 일이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여기서 행복을 경험한다.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엄마들도 집 밖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같은 세대의 엄마들이 와서 경험을 나눈다.

2) 서로 배움과 교육

아이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이전의 경험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 집단을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떤 교육적인 개념이나 능력이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서로 협력하고 공적인 상황에서 배워가는 방식을 유용하게 여기는 것이다.

마더센터 초창기 활동가는 센터 안에서 모두가 얼마나 관대한지, 서로에게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관대해질 수 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었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자신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3) 이웃과 지역공동체 서비스

마더센터의 활동 범위는 이웃과 지역으로 광범위하다. 아동돌봄서비스, 성인돌봄, 중단 없는 카페, 지속적인 교육(노동부와 교육기관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형태), 세탁, 이동, 쇼핑 등 홈서비스, 아이에서 노인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소규모 소기업 창업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4) 자원활동과 가족친화 일자리

마더센터는 전일제 워킹맘이나 전일제 전업맘의 제약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위한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큰 장점을 갖는다. 이 공간에서는 일을 중단한 여성이 다시 일 경험을 하고, 임금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마더센터에서는 꿈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장이기도 하다. 만일 중고할인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면, 여성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받아 그것들을 팔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각, 바느질 등도 배울 수 있다. 작품들을 팔아서 수



익을 얻지만, 항상 생산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업은 다소 느릴 수 있다. 중고할인 매장에서는 옷을 가져오면, 받을지를 점검해서, 다시 되팔 수 있는 좋은 상태로 만든다. 가격표를 붙이고 판매하는데, 판매 가격의 20%는 마더센터에 수수료로 남기는 구조다.

마더센터 안에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신만의 가게를 차릴 수 있고, 세금 걱정이 없다. 결국 마더센터의 수익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많은 투자금이 들지 않고, 동시에 아이들도 돌볼 수 있다.

5) 이웃네트워크, 지역공동체발전, 정치참여 일궈내

여성들과 지역주민들은 마더센터 활동을 통해 여러 어려움에도 계속 용기를 주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사는 방식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이웃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생활을 회복시키는 역할도 해내고 있다.

그렇다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이 방식은 일이 많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보를 개방하고 정직하게 다루려는데 도움이 되며, 더 많은 여성들이 의사결정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개인의 성장도 가능하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언제든 다시 올 것이고, 새로운 도전에 새로운 행운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 마더센터의 십계명

- 1) 관대하라.
- 2) 침착하라.
- 3) 다른 이에게 부담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 4) 부러워하지 말라.
- 5) 당신에 대한 험담이 있더라도 이겨내라.
- 6) 혼란을 즐겨라.
- 7) 다른 아이들도 그들의 엄마에게는 특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 8) 자발적으로 행동하라.
- 9)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 10) 다시 돌아오라.



6) 지역 정치 참여와 국제 여성정치

마더센터 여성들은 시 발전과 계획과 관련한 선거와 행정 상담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후 마더센터는 국제 여성 정치 무대에도 진출하게 되었다.

1995년에 여러 독일 마더센터의 대표 20여명이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 참여했다. 이를 위해 2년간 준비과정을 거쳤다. 마더센터를 알리기 위해 베틀시장이나 자비를 털어 돈을 모으고, 영문과 중문으로 된 책자를 준비하고, 풍선과 쿨트를 제작해 세계 여성과 만날 준비를 했다고 한다. 베이징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은 쿨트 만들기에 참여했다. 마더센터가 세계 여성단체로부터 주목받게 된 큰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이듬해 국제연합세계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마더센터는 이웃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성공적인 모델로, 수많은 협력제의를 받는다. 마더센터는 1997년에 국제연합-해비타트 명예상을 수여, 1998년 이래로 유엔인간주거센터(UNCHS)의 최고의 실천프로그램으로 선정된다.

마더센터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계와 손잡고 국제풀뿌리기관 ‘GROOTS’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마더센터가 ‘엑스포2000’이라는 세계프로젝트가 되면서, 풀뿌리여성들의 국제아카데미(GWIA)를 주관해서 세계 42개 풀뿌리단체를 초대하고 실천을 나눈다.

■ 왜 세계 여성단체들은 독일 마더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 “아이돌봄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항상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마더센터 모델은 엄마에게도 집중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 “복지예산이 삭감되면서 이웃에 사는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재정 어려움을 경험했다. 고립되지 않고 갈 곳이 있는 게 중요하다. 마더센터는 엄마들을 만나 함께 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찾는데 완벽한 곳이다” (미국 뉴욕)
- “전쟁으로 망가진 모든 것을 재건하기 위해 이웃이 필요했다. 이웃센터가 발전하게 된 이유다. 이웃과 관계를 발전시킨 다른 나라 여성들의 노하우를 알게 되어 정말 좋다” (아프가니스탄)
- “마더센터는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체코공화국)



○ “미국여성운동은 엄마들이 엄마와 정치에 대해 다시 말할 때다. 마더센터는 여성의 관심을 말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다” (미국 리틀록)

마더센터에 없고 있는, 4무(無)4유(有)

그림 6. 마더센터의 4무(無)4유(有)



1) 수직 체계→ 팀 활동

마더센터는 잘 교육을 받고 일한 전문가들로만 채워져 있지 않다. 여성 스스로가 가진 재능과 경험들 모두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

엄마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팀을 꾸려 운영을 살피고,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만난다. 팀의 일은 센터 운영을 협의하고, 엄마들이 자조 프로그램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팀 활동은 센터 참여자들의 관용과 연대 분위기 발전에 기여한다. 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행동을 반추해보고 단체의 역동성을 배운다. 팀 활동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적절한 행동과 기술을 배운다.

마더센터에는 매일 30~40명의 여성들이 들르고, 아이까지 포함하면 2배 이상 모인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 한부모, 이민여성, 워킹맘 등 다양하다. 적극적인 참여자는 100~150명, 방문자수는 300~500명 규모다. 카페에서 일하고, 아이들



봄서비스는 시간당 비용을 내고, 모든 여성들은 베희시장, 기타과정, 다림질, 수선, 바느질, 마사지, 아이 체조, 점심, 세금 조언 등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더센터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30~40여명의 여성들 스스로가 설계하고, 활동한다. 여성 모임 구성은 당사자의 의지나 가족의 사정에 따라 1년간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활동하는 엄마들은 센터와 일에 대해 한 달 단위로 협의하고, 이 모임뿐 아니라 팀 모임도 모든 엄마들에게 열려있다.

2) 시간 제약→ 100개 열쇠

마더센터에는 ‘100개의 열쇠’가 있다고 한다. 이는 매일 센터에 들르는 여성들이 언제든지 오갈 수 있는 공간임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이기도 하다.

이처럼 마더센터에는 아이를 둔 엄마들의 리듬에 맞춰있어, 고정된 일정이 없다. 카페 문은 매일 열지만, 엄마들은 시간이 허락된 때 참여한다. 자주 열리는 과정, 세미나, 서비스, 레크레이션 활동 등이 참여 혜택이다. 아이를 데려온다고 부담이 있거나, 비용도 들지 않는다.

모든 일들의 핵심은 언제나 들를 수 있는 ‘중단 없는 카페’라는 점이다.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엄마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덜어준다. 마더센터 초창기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간제약도 났다. 엄마와 지역 여성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문을 여닫는 시간이나, 돌봄이 이뤄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었다. 엄마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더센터는 ‘중단 없는 카페’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3) 전문가→ 생활 전문가

마더센터에는 엄마들이 전문가다. 마더센터는 기성의 전문가와 차별화된 생활전문가가 있고, 전문가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썼다. 모든 일들은 그들 스스로가 조직해 하고, 센터 운영을 기획하고 경영한다. 마더센터에서의 활동과 교육 과정이 역량강화를 뒷받침되면서 평범한 엄마들이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 ‘전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전문가와 풀뿌리 전문가는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 내용과 조직에서 유연하다.
 -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다양한 책임감, 다양한 공간 사용,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다.
 - 전통적인 위계질서나 의식은 낮다.
 - 방문자들을 고객으로 보거나 대하지 않는다.
 - 서로 온전한 사람으로 느끼고, 감정을 열어놓고 보여준다.
 - 센터 전체를 위해 개인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 청소 활동은 자발적이고, 무임금 참여와 같은 자원활동을 기대한다.

4) 자원→ 공적 보조금

마더센터의 일상 활동 범위는 전문 상담 기관과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는다. 특히 협소한 시간과 자금을 생각한다면 경이로운 수준이다. 자금과 공간은 마더센터 운영의 필수 조건이다. 뮌헨에서 첫 3년은 19.6평 내외 아파트를 센터로 삼고, 방 하나는 카페로 다른 방은 놀이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32평으로 옮겨 아이 놀이방, 카페, 사무실로 나누고, 지하는 판매, 이발소 등으로도 활용했다. 카페운영, 베틀시장, 판매와 서비스 등 마더센터 운영에는 연간 보조금 6만유로(연간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공기관과 비교해볼 때 비용 대비 효과는 놀랍기는 하나, 마더센터는 보조금 없이 운영되기는 어렵다.

마더센터란?

종합적으로 보면, 마더센터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센터에서 여성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으로 참여한다. 근본적으로는 개별 여성들이 센터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 동시에 ‘휴식, 재충전’은 나쁜 단어가 아니다. 엄마들은 지지받고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
- 센터에서 풀뿌리 여성들은 전문가이다. 전문가와 협력도 중요하다.
- 센터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임금을 받는다.



- 기존의 전문가적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 경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는 풀뿌리 일에 자신감과 믿음이 있는 발기인 그룹을 결성한다.
- 훈련과 세미나에서의 사색이 실질적인 일을 만들고, 일상적인 경험이 센터에서 필수적인 지지 구조이며, 배움의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른 마더센터 엄마들 간 교류는 매우 생산적이고 자극이 된다.

그래서 마더센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마더센터는 자조 원칙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적 공간을 요구한다.
- 마더센터는 다양한 도움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중요한 이웃 네트워크 센터이다.
- 마더센터는 새롭고 가족친화적인 형태의 아이돌봄을 발전시키고 실현한다.
- 마더센터는 교육과 자질을 높여주고, 노동시장에 재진입에 도움을 준다. (마더센터는 가족친화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사례다.)
- 마더센터는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 마더센터는 가족의 관심을 대변하고, 지역공동체에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9월 11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환자가 재정위기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
고용,노동	4/28	감춰진 제3의 지표, '체감 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 모든 것 : ② 대기업들의 합법적 탈세비법 세 가지	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 임대주택(New Stay) 사업, 아직은 시기상조	진남영
고용,노동	5/18	2015년 4월 노동시장 분석 : 불안정 노동자의 개념 및 규모	김수현
고용,노동	5/21	노동자가 소비자다 : 떠오름과 빈곤의 역학	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 주거복지 컨퍼런스 후기① 더 많은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 새로운 주체의 발견과 청년의 사회혁신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 혁신, 해답은 '현장' 에 있다	민달팽이 유니온
지역,사회	6/12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1) : 인구기초통계 ①	강세진
경제	6/15	죽을 때까지 저축하는 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 적정선 논의, '현실'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노동	6/23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노동	6/25	2015년 5월 노동시장 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 연금 개정안으로 열린 '기회의 창'	이은경
고용,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 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 희생으로 쌓는 사상누각	강세진
고용,노동	7/20	공유지식 혹은 상징폭력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이정아
고용,노동	7/24	2015년 6월 노동시장 분석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출구는 있을까	김수현
지역,사회	7/27	센서스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 (2) : 인구기초통계 ②	강세진
고용,노동	8/3	서비스 · 판매 종사자를 통해 본 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①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②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③	강세진
고용,노동	8/24	2015년 7월 노동시장 분석 : 늘어나는 여성 노동자, 계속되는 성별 격차	김수현
경제	8/31	빈곤의 정의와 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최정은
복지	9/11	한국형 '마더센터' 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② 모두의 '공동거실' , 독일 마더센터	최정은